

CEO Report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Ⅲ): 동남아시아 보험시장 평가와 시사점

김해식·이승준·이승주

08_호

2023.09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한국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보험수요는 중산층의 증가를 통해 창출된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 대상으로서 글로벌 중산층의 성장을 주도하는 아시아 신흥시장,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의 '아세안 5'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아세안 5는 유럽연합형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핵심으로 해당 지역 인구의 87.3%, GDP의 83.4%를 차지하고 있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이들 보험시장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평가함

아세안 5는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보험시장이지만, 세부적으로 비교·평가해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베트남이, 공급 측면에서는 태국과 베트남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음.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과 보험수요 간의 정(+)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성장 여부에 따라 국가별 보험시장의 성장에도 차이를 보이므로, 중산층 성장을 견인하는 소득 불평등 개선이나 도시화 등을 평가에 고려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시장 진입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행정 및 규제 투명성, 시장 경쟁, 인적자본, 금융거래의 IT침투율 등을 평가에 고려함. 또한,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지출 등은 향후 보험수요의 추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며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첫째,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저축수요가 커서 실제로 유닛링크와 같은 투자형 저축상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산층이 성장함에 따라 사망 및 건강보장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이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 배상책임 등 손해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둘째, 수준 높은 인적자본과 IT 침투율, 활발한 시장경쟁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 접근하는 방식과 규제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있어 경쟁우위를 확보할 상품과 채널의 문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인수합병(M&A) 등의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아세안 5는 대체로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지만, 지역별로 이미 고령화가 진행 중이므로 건강·연금 보장은 물론 요양·간병 서비스를 포괄하는 시장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화와 수출지향형 경제 발전에서 요양·간병은 단기적으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있어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그동안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은 대형보험회사의 전략적 옵션으로 여겨져 왔으나, 중·소형 보험회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검토할 시기라고 판단됨

I

왜 동남아시아인가?

1. 보험수요와 중산층 증가

○ 보험수요는 중산층 증가를 통해 창출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중산층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 시장,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이라 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SwissRe 2022)

- 1950년대 전 세계 중산층의 90%는 유럽과 북미에 거주하였으나, 2015년 30억 명인 중산층 인구가 2022년에는 40억 명에 이르렀는데, 늘어난 10억 명의 대다수는 아시아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됨 (Kharas 2017; Kharas and Dooley 2020)

〈그림 I-1〉 글로벌 중산층의 성장 및 전망

(단위: 십억 명)



자료: Kharas(2017) 수정 인용함

〈그림 I-2〉 2015~2022 중산층 증가의 지역별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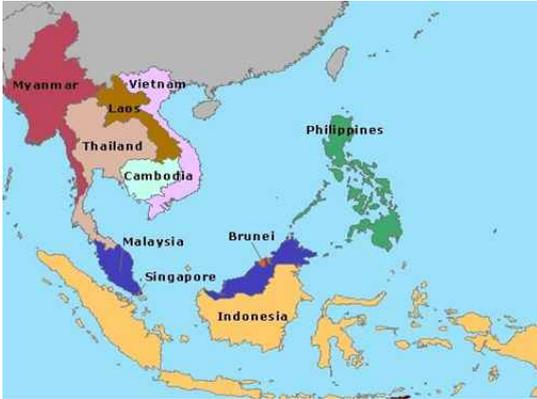
(단위: 십억 명)



주: MENA는 중동·북아프리카, SS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임
자료: Kharas(2017) 수정 인용함

- 인도, 중국과 함께 ASEAN은 글로벌 중산층의 성장을 주도함
 - ASEAN의 인구 규모는 인도의 절반에 불과하나, GDP는 인도의 1.3배로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하 '아세안 5'라 함)은 ASEAN 전체 인구의 87.3%, GDP의 83.4%를 차지하면서 ASEAN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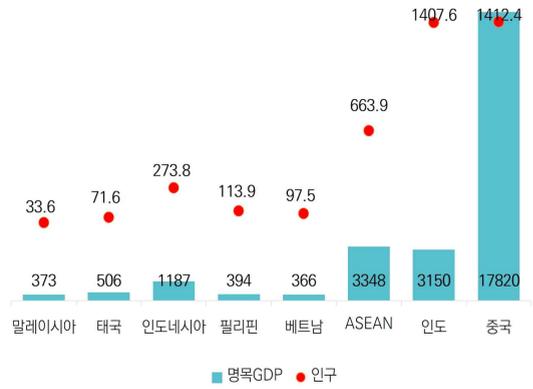
〈그림 I-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 개국



자료: ASEAN-KOREA CENTRE(2022)

〈그림 I-4〉 ASEAN 인구 및 경제규모(2021)

(단위: 십억 달러, 백만 명)



자료: World Ban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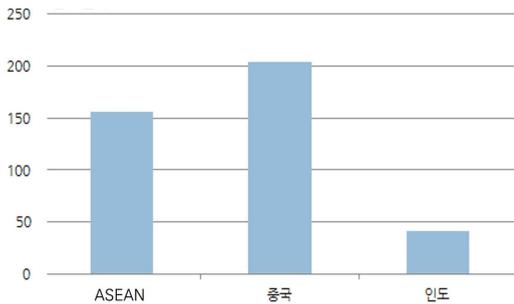
2. 아세안 경제공동체

○ 2015년 ASEAN은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하는 정치·안보, 사회·문화, 경제의 3대 공동체 비전을 발표하여 단일 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역내 규제개혁을 진행 중임

- 공동체 구상을 통해 ASEAN은 중국과 인도 경제의 부상과 자유무역협정 확산에 대응하고, 해외 직접투자 유치와 역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라미령 외 2021)
- ASEAN이 유치한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인도의 3배 수준이며, 투자의 상당 부분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ASEAN 역내에 재투자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PwC·삼일회계법인 2020)

〈그림 I-5〉 해외 직접투자 순유입(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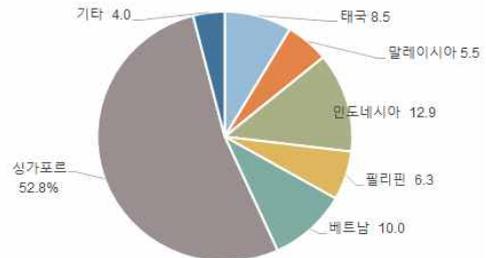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PwC·삼일회계법인(2020)

〈그림 I-6〉 ASEAN 유입 해외 직접투자 구성(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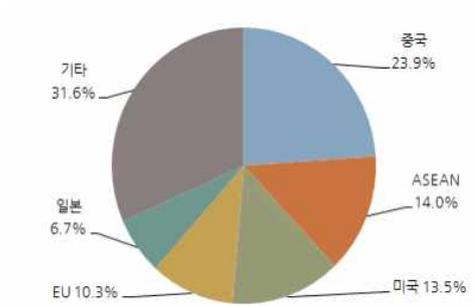
(단위: %)



자료: PwC·삼일회계법인(2020)

○ 한국에 있어 ASEAN(14.0%)은 중국(23.9%)에 이어 2대 교역지이고, ASEAN에 있어 한국(6%)은 중국(23%), 미국(9%), 일본(8%)에 이어 4대 교역지로서 한국과 ASEAN 간 활발한 교류 활동은 국내 보험 회사의 ASEAN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임(PwC·삼일회계법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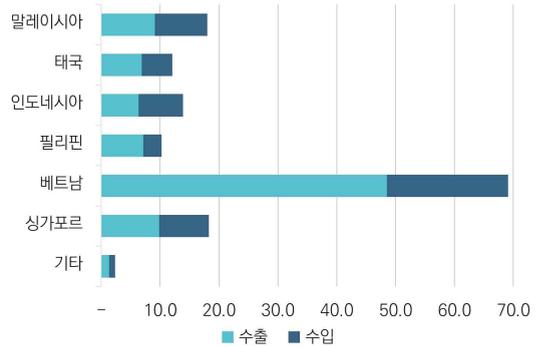
〈그림 I-7〉 한국의 주요 교역국(2021)



자료: ASEAN-KOREA CENTRE(2022)

〈그림 I-8〉 한국-ASEAN 무역량 추이(2020)

(단위: 십억 달러(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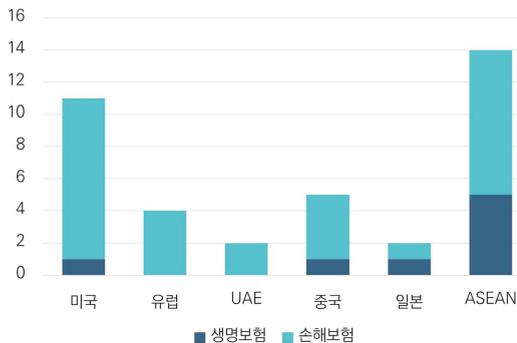
자료: ASEAN-KOREA CENTRE(2022)

○ 이에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도 ASEAN 지역이 14개 사로 가장 많아, 이 지역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수요 및 공급과 관련한 지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아세안 5 보험시장을 비교·평가함

〈그림 I-9〉 국내 보험회사 해외진출 현황(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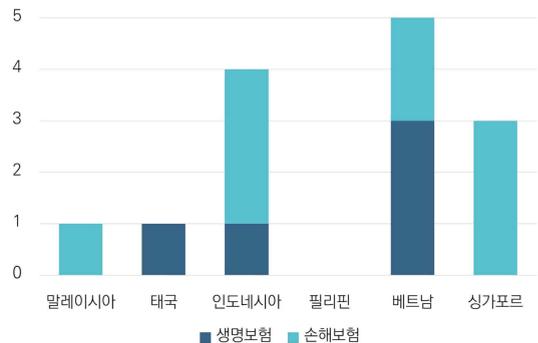
(단위: 개)



자료: 오병국(2023)

〈그림 I-10〉 국내 보험회사 ASEAN 진출 현황(2021)

(단위: 개)



자료: 오병국(2023)

II

동남아시아 보험시장의 특성

1. 경제성장과 보험수요

○ 경제가 저소득(Lower income) 단계에서 중소득(Middle income)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보험침투율이 급증하는 S자형 성장 패턴을 보이는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아세안 5는 모두 중소득 국가에 속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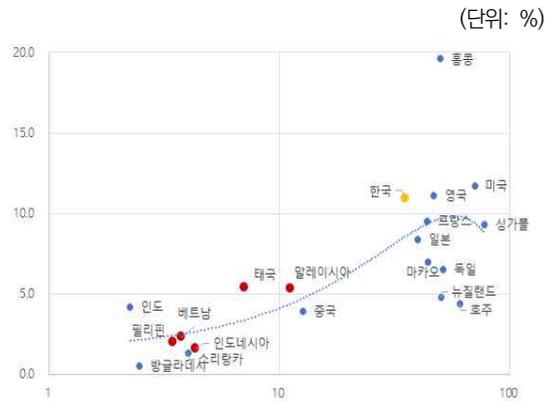
- 생명보험이 주도하는 아시아 보험시장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경제성장률과 보험료성장률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 격차만큼 아시아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줌
-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는 S커브의 가속 성장 구간에서는 경제성장이 둔화하더라도 보험료 성장은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는데(SwissRe 2019), 아세안 5는 모두 가속 성장 영역에 있음
 - 가속 성장 구간에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가속 성장 초입에 있으며, 공통적으로 생명보험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연간 보험료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는 시장이 없음

〈그림 II-1〉 명목 GDP 및 생명보험료 성장(2000~2022)



주: 1) 2000년=100, GDP는 실선, 보험료는 점선임
 2) 아시아: 20년간 연평균성장률이 -1.1%인 일본은 제외함
 자료: McKinsey(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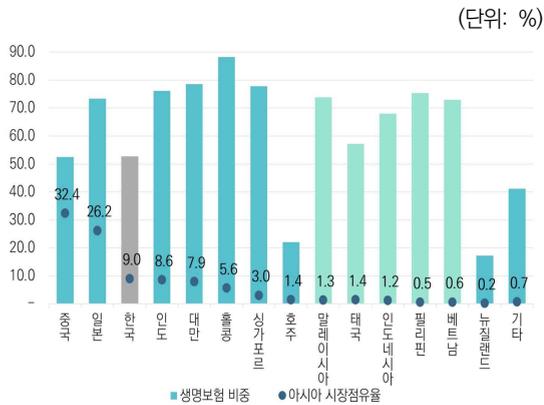
〈그림 II-2〉 보험침투율과 1인당 국민소득(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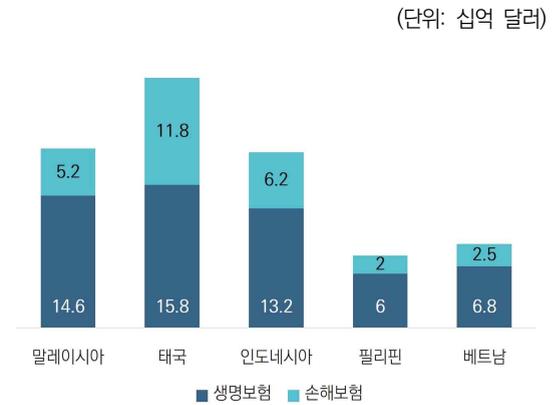
주: X축은 1인당 GDP의 로그값, Y축은 보험침투율임
 자료: SwissRe(2022)

1) 세계은행은 말레이시아, 태국을 'Upper Middle Income',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Lower Middle Income' 국가로 분류함

〈그림 II-3〉 생명보험 - 아시아 비중 및 자국 비중(2021)



〈그림 II-4〉 아세안 5 보험시장 규모



주: 기타에는 마카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이 있음
 자료: SwissRe(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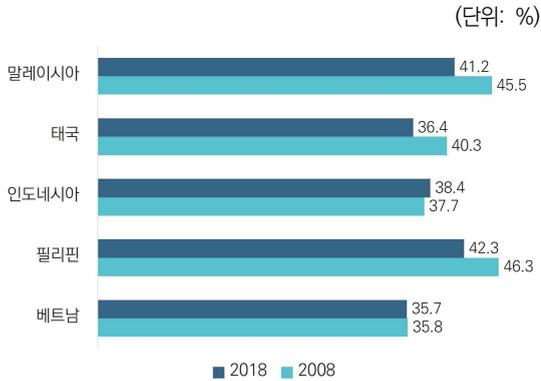
자료: SwissRe(2022)

2. 소득 불평등 개선과 도시화

○ 경제성장과 보험수요 간 정(+)의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요를 창출하는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하는 소득 불평등 개선과 도시화 정도에 따라 보험시장 성장은 국가 및 지역마다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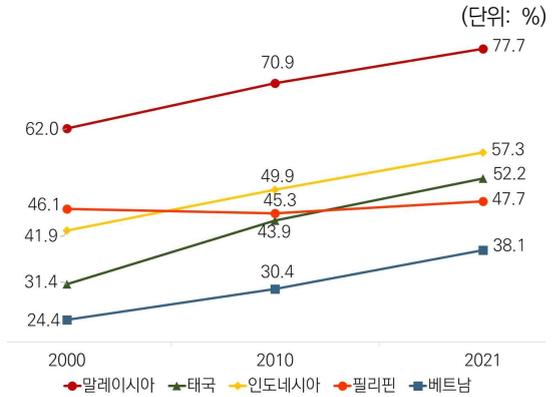
-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인적자원과 기반 시설의 축적이 이루어지며(방설아·강영구 2019), 더 나은 경제 정책과 도시화를 달성함(강성진 2010; Easterly 2001)
- ASEAN의 지난 10년간 소득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개선됨
 - 한편, 소득 불평등 개선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높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베트남의 개선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화는 국가 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의 증가를 의미하며, 고용기회는 도시화 촉진의 핵심 요소로, 중산층 성장의 기반을 제공함
 - 아세안 5의 도시인구 비중은 선진 경제 수준에 근접한 말레이시아(77.2%)부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 되는 단계의 인도네시아(56.6%), 태국(51.4%), 필리핀(47.4%), 도시 가속화 초기 단계에 들어선 베트남(37.3%)까지 다양함
 - 한편,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 증가율을 보면, 아세안 5 가운데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베트남의 최근 도시인구 증가율은 3.0%로 인도네시아(2.3%), 말레이시아(2.1%), 필리핀(1.9%), 태국(1.8%)보다 높게 나타남(방설아 2021)

〈그림 II-5〉 소득 불평등 지수 추이



자료: World Bank Data

〈그림 II-6〉 도시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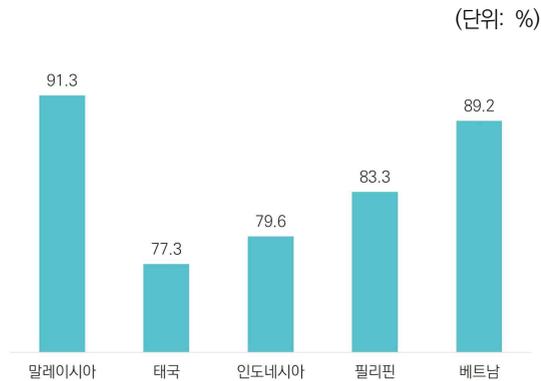
자료: UNCTAD stat

3. 인적자본, 시장 인프라와 시장구조

○ 현지 시장의 인적자본 수준과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및 금융규제 등과 관련한 시장 인프라는 국내 보험 회사의 ASEAN 시장 진입방식과 보험공급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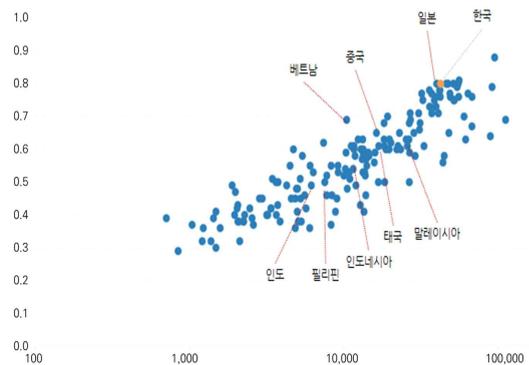
- 보험회사의 소비자 접근성 및 판매채널 구축에 필요한 인적자본 지표로서 문해율과 중등·고등교육이수 비율을 고려할 수 있는데, 아세안 5는 중등교육 참가율과 더불어 미래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지수도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에 속함

〈그림 II-7〉 중등교육 참가율



자료: ASEAN-KOREA CENTRE(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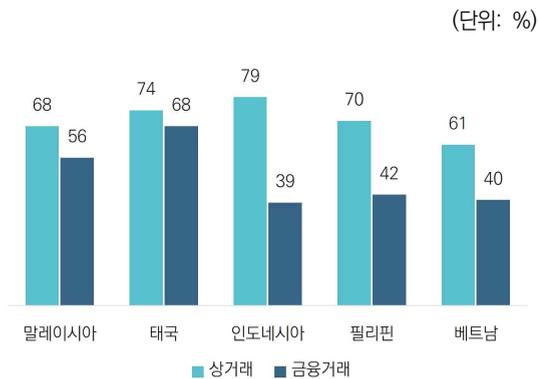
〈그림 II-8〉 인적자본지수



자료: World Ban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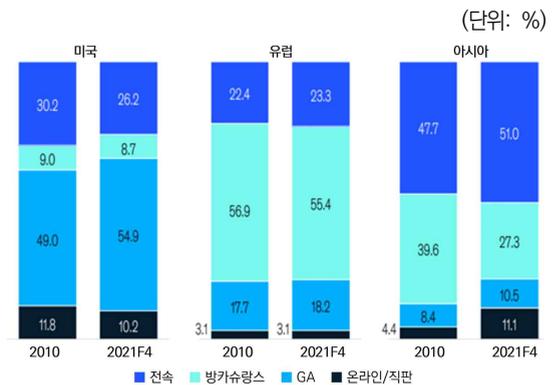
- 신흥시장이 선진시장의 인프라 축적 경로를 우회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IT를 활용한 시장 인프라의 구축이며, 아세안 5 역시 금융거래에서 모바일 비중이 40% 이상을 나타냄
 - 아시아 보험시장의 경우, 전속설계사의 비중이 여전히 중요한 가운데 은행 채널의 비중은 줄어들고 GA와 더불어 온라인채널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McKinsey 2023)
 - 팬데믹을 통해 건강보험의 비대면 채널 비중이 상승하면서 보험회사의 IT 활용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인슈어테크 활용이 늘고 있음(Google, Temasek and Bain&Company 2021)

〈그림 II-9〉 상거래 및 금융의 모바일 거래 비중(2020)



자료: ASEAN-KOREA CENTRE(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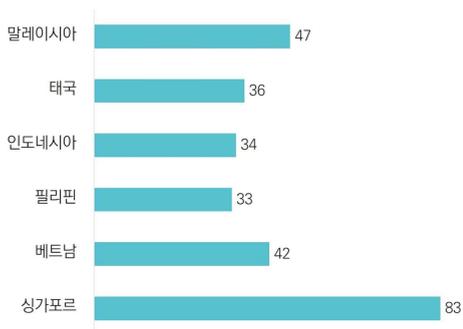
〈그림 II-10〉 보험시장 판매채널 구성(2010 vs. 2021)



주: 2021년은 예측치임
자료: McKinsey(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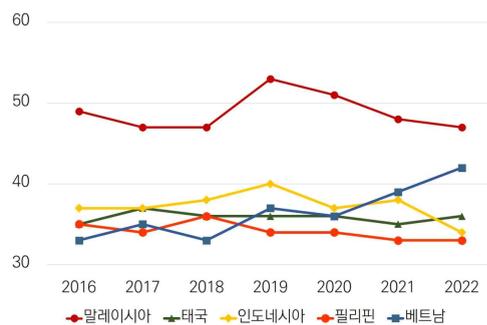
- 행정 및 규제에 예측 가능성은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및 거래비용을 낮춘다는 점에서 투명성 지표인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아세안 5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베트남은 최근 들어 행정과 규제의 투명성 개선이 가장 두드러진 국가이기도 함

〈그림 II-11〉 부패인식지수(2022)



주: 지수는 0~100, 높을수록 부패에 민감한 것으로 평가함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2023)

〈그림 II-12〉 투명성의 변화(2016~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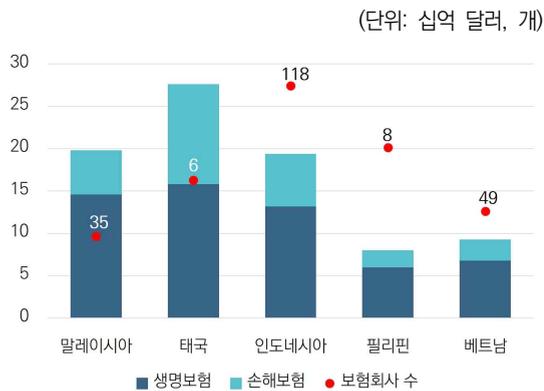


주: 지수는 0~100, 높을수록 보다 투명하다고 평가함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2023)

○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얼마나 활발한가는 시장구조의 경쟁도에 영향을 받는데(Ma and Pope 2003),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보험시장은 많은 보험회사 수와 높은 시장경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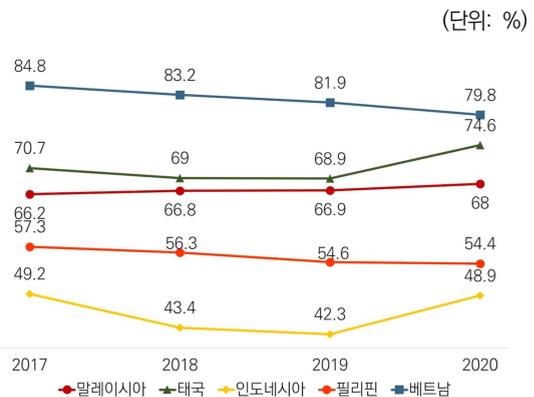
- 아세안 5 생명보험 시장에서 상위 5개 회사의 집중도 추이를 보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시장이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남
- 시장 규모에 비하여 많은 수의 보험회사가 활동하는 시장은 인허가 등 규제에 의한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을 방증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활동 보험회사 수가 가장 많음

〈그림 II-13〉 아세안 5 보험시장 규모 대비 회사 수



자료: AXCO

〈그림 II-14〉 아세안 5 생명보험시장 집중도 추이



주: 각국 생명보험회사 시장집중도(CR5) 기준임
자료: AXCO

4. 인구구조와 사회보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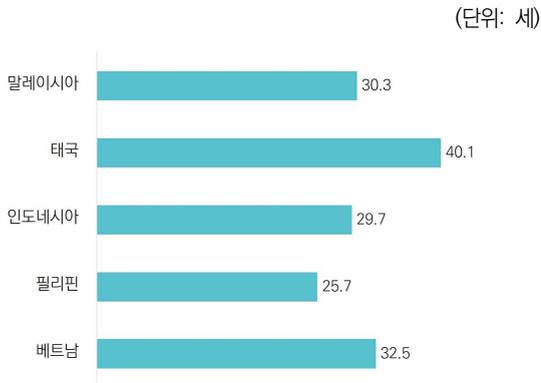
○ 인구 규모가 잠재 보험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라면,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등 인구구성 관련 지표는 보험시장의 잠재 성장과 보험수요의 내용을 예측하는 지표임

- 선진시장의 성장 경로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저축성 수요, 점차 보장성 수요와 연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을 보여주는데(전용식 외 2015), 이는 새롭게 등장하는 중산층의 보장수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음
- 가구소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의료비에 대응하려는 중산층의 니즈는 사망·재해·건강 보장 수요로 나타나고, 주택 구매와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의 증가는 손해보험과 신용·보증보험 수요로 나타남 (The Economist 2015; 김현수 외 2021)
- 인구의 중위연령과 부양비율은 아세안 5의 젊은 인구구조를 보여 주고 있으나, 고령화 수준과 합계출산

올의 경우 태국과 베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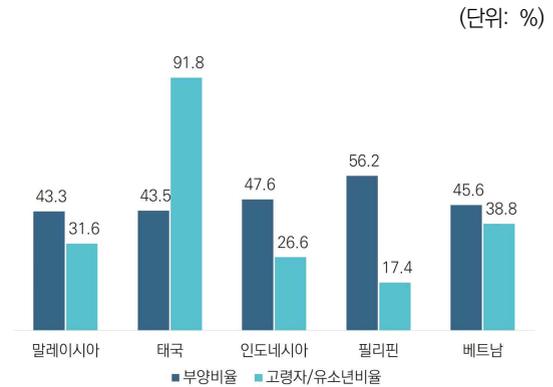
- 합계출산율은 태국 1.5, 말레이시아 1.7,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2.1, 필리핀 2.7을 각각 기록함

〈그림 II-15〉 인구구조 - 중위연령



자료: World Bank Data

〈그림 II-16〉 인구구조 - 부양비율 및 고령자/유소년비율



자료: UNCTAD stat

○ 건강 및 소득 보장 수요에 대한 국가별 대응은 사회보장지출과 민영보험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수출주도형 경제개발단계에 있는 아세안 5개 사회보장지출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므로(양재진 2020)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큼

- 사회보장지출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평균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고(ADB 2019), 향후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The Economist 2015)

〈그림 II-17〉 아시아 지역 사회보장지출



주: GDP 대비 비율임

자료: OECD Data

〈그림 II-18〉 사회보장지출 중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주: GDP 대비 비율임

자료: ADB(2019)

III

동남아시아 시장 평가와 시사점

1. 동남아시아 보험시장 평가

가. 종합 평가

○ 아세안 5는 모두가 성장하는 보험시장이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험시장을 상대 평가한 결과, 수요 측면에서는 베트남이, 공급 측면에서는 태국과 베트남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음

-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과 보험수요 간의 정(+)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성장 여부에 따라 국가별 보험시장의 성장에도 차이를 보이므로,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외에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하는 소득 불평등 개선이나 도시화 등을 평가에 고려함
- 공급 측면에서는 시장 진입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행정 및 규제 투명성, 시장경쟁, 인적자본, 금융거래의 IT 침투율 등을 평가에 고려함
- 한편, 수요와 공급 모두와 관련이 있고 양방향 평가가 가능한 인구구조 변화, 민영보험과 대체 관계인 사회보장지출은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보험수요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고려사항임

〈표 III-1〉 아세안 5 보험시장 평가

구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보험수요	●	○	●	●	●
보험공급	●	●	○	○	●

- 주: 1)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를 왼쪽부터 배열함
 2) '상 ●', '중 ●', '하 ○'로 평가함
 3) 아세안 5 국가들만의 상대평가 결과이며 상세 통계는 부록을 참조하길 바람

나. 세부 평가

○ 경제 규모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이 좋은 평가를 받음

- 인구지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경제지표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각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지표는 1인당 GDP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고, 인구지표는 현재 인구나 2050년 전망치를 반영함

〈표 III-2〉 경제 규모 평가

지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경제 규모	●	●	●	●	●
- 경제	●	●	●	●	●
- 인구	○	○	●	●	●

- 주: 1)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를 왼쪽부터 배열함
 2) '상 ●', '중 ○', '하 ○'로 평가함
 3) 아세안 5 국가들만의 상대평가 결과이며 상세 통계는 부록을 참조하길 바람

○ 중산층 성장 측면에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그리고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국가별 차이는 크지 않음

- 불평등 개선은 태국이, 도시화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불평등 개선 지표는 지니 계수로 측정된 불평등 지수와 10년 동안의 불평등 지수의 변화를 반영하였고, 도시화 지표는 도시인구비율과 최근 도시인구 증가율을 반영함

〈표 III-3〉 중산층 평가

지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산층	●	●	○	○	●
- 불평등 개선	●	●	○	●	●
- 도시화	●	○	●	○	●

- 주: 1)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를 왼쪽부터 배열함
 2) '상 ●', '중 ○', '하 ○'로 평가함
 3) 아세안 5 국가들만의 상대평가 결과이며 상세 통계는 부록을 참조하길 바람

○ 인적자본과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부패인식지수로 측정된 투명성 지표와 인적자본 지표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IT 침투율은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투명성 지표는 부패인식지수와 그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인적자본 지표는 인적자본지수와 중등 교육참가율을, IT 침투율 지표는 일반 상거래와 금융거래의 모바일 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함

〈표 III-4〉 인적자본과 시장 인프라 평가

지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적자본과 인프라	●	◐	○	○	●
- 투명성	◐	○	○	○	●
- 인적자본	●	◐	○	○	●
- IT 침투율	◐	●	◐	●	○

주: 1)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를 왼쪽부터 배열함
 2) '상 ●', '중 ◐', '하 ○'로 평가함
 3) 아세안 5 국가들만의 상대평가 결과이며 상세 통계는 부록을 참조하길 바람

○ 시장경쟁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보험시장이 외국 보험회사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장인 것으로 평가됨

-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시장집중도가 높고, 태국도 생명보험의 시장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경쟁도 지표는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에서 활동 중인 보험회사의 수와 상위 5개 사의 시장집중도(CR5)를 반영함

〈표 III-5〉 보험시장 경쟁도 평가

지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생명보험	○	◐	●	●	○
손해보험	○	○	●	●	○

주: 1)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를 왼쪽부터 배열함
 2) '상 ●', '중 ◐', '하 ○'로 평가함
 3) 아세안 5 국가들만의 상대평가 결과이며 상세 통계는 부록을 참조하길 바람

2. 시사점

○ 아세안 5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의 사망 및 건강보장 수요가 증가하고, 도시기반시설이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 배상책임 등 손해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임

- 경제개발 초기 단계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는 저축 수요가 커서 보험시장에서 유닛링크(Unit-linked)로 대표되는 투자형 저축상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그러나 가구주의 사망 및 상해에 대비한 소득보장과 가계의 건강보장에 대한 중산층의 수요 증가는 사망·상해·건강보험의 확대로, 중산층의 주택 구매와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증가는 손해보험과 신용·보증보험 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것임

○ 수준 높은 인적자본과 IT 침투율, 활발한 시장경쟁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 접근하는 방식과 규제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

- 외국 보험회사의 아세안 5 진출이 활발하고 시장경쟁도 치열하다는 점은 시장 진입이 어렵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나, 보험회사는 시장 진입 시 경쟁우위를 확보할 상품과 채널의 선택, 인수합병 등의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상품 판매는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이 주도하고 있으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채널의 성장이 두드러짐
- 한편, ASEAN으로 유입되는 해외 직접투자의 50% 이상은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아세안 5에 재투자되고 있다는 점도 아세안 5 투자방식과 시장 진출을 선택하는 데 고려할 요소임
 - 아세안 5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더불어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간접 투자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음
- ASEAN은 태풍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므로(ASEAN 2023), 이 지역에 진출하는 보험회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을 사업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5는 대체로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지만, 향후 고령화 진행을 염두에 두고 연금과 건강은 물론 요양·간병 서비스를 포함한 시장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5의 사회보장지출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평균인 GDP의 7%에 미치지 못하고, 산업화와 수출지향형 경제 발전 단계에서 요양 및 간병에 대한 자원배분은 우선순위가 아니므로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큼
 - 다만, 요양·간병 서비스는 시설 및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당국의 해외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임
- 그동안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은 대형보험회사의 전략적 옵션으로 여겨져 왔으나, 중·소형 보험회사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시기임

참고문헌

- 강성진(2010), 「중산층의 추이·이탈 분석과 대책」, 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윤·손기태·이재호·백유진(2010),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현수·정세창·이경희·김석영·손지영(2021), 『아시아 주요국의 보증보험시장 진출방안 연구』, 연구
용역보고서, 보험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코로나19가 후퇴시킨 아시아공동체의 꿈, 우리의 역할은?』
- 라미령·최인아·정재완·신민금·김형종(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
책의 과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방설아·강영구(2019), 「도시화와 빈곤감소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국토계획』, 제54권 제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방설아(2021), 「아세안 도시집적의 차이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제56권 제1호,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
- 양재진(2020), 『복지의 원리: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한겨레출판
- 오병국(2023),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과 제언」,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금융위원회
- 전용식·조영현·채원영(2015),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 PwC·삼일회계법인(2020), 「Doing Business in ASEAN: 동남아시아 세미나 세션1 - 투자와 사
업」, 동남아시아 세미나
- ADB(2019), “The Social Protection Indicator for Asia”, Asia-Pacific Social Protection
Series
- ASEAN(2023), “Asian State of Climate Change Report”
- ASEAN-KOREA CENTRE(2022), “2022 ASEAN & KOREA in Figures”
- AXCO, “각 나라별 생명보험 시장 및 손해보험 시장”
- Bộ Tài Chính(2021), “THE ANNUAL REPORT OF VIETNAM INSURANCE MARKET 2021”

- Easterly, W.(2001), “The Middle Class Consensu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Springer, 6(4), pp. 317~35
- Google, Temasek, and Bain&Company(2021), “e-Conomy SEA 2021 – Roaring 20s: The SEA Digital Decade”
- Insurance Commission Philippines(2022). “Annual Report 2020”
- Kharas, H.(2017), “The Unprecedented Expansion of the Global Middle Class”, Brookings Institution
- Kharas, H and Dooley, M.(2020), “China’s influence on the global middle class”, Brookings Institution
- McKinsey(2021), “Beyond income: Redrawing Asia’s consumer map”
- _____ (2023), “Global Insurance Report 2023: Reimagining Life Insurance”
- Ma, Y. and Pope, N.(2003),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Insurers’ Participation in Foreign Non-Life Market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0(2)
- SwissRe(2019), “Emerging markets: the silver lining amid a challenging outlook,” Sigma 1/2019
- _____ (2022), “Reshaping the social contract: the role of insurance in reducing income inequality”, Sigma 3/2022
- _____ (2023), “World Insurance: Stirred, and not Shaken”, Sigma 3/2023
- The Economist(2015) “World Industry Outlook: Financial Service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_____ (2023), “A Tougher Growth for Emerging Asia”
- Transparency International(2023),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22”
- OECD Data(<https://data.oecd.org>)
- UNCTADstat(<https://unctad.org/statistics>)
- World Bank Data(<https://data.worldbank.org>)

1. 아세안 5 보험시장 주요 통계

〈부록 표 1〉 아세안 5 주요 보험 통계

구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시장 규모 (2022)	전체 시장 규모(십억 달러)	20.1	25.2	18.9	7.7	11.3	
	생명	수입보험료(십억 달러)	14.7	13.8	11.8	5.4	8.3
		보험료 증가율(%)	-0.8	-10.8	-12.6	-10.8	18.9
	손해	원수보험료(십억 달러)	5.4	11.4	7.1	2.3	3.0
		보험료 증가율(%)	5.0	-4.3	15.3	4.9	17.4
	연평균보험료증가율('00~'21)	8.6	11.0	12.0	10.1	21.7	
보험침투율 (2021)	전체 보험시장	5.0	5.3	1.4	1.9	2.3	
	생명	보험침투율(%)	3.7	3.4	0.9	1.3	1.6
		10년 증감(%p)	0.6	0.7	0	0.7	0.9
	손해	보험침투율(%)	1.3	1.9	0.5	0.6	0.7
		10년 증감(%p)	-0.4	0.2	-0.1	0.1	-0.2
보험밀도 (2021)	전체 보험시장(달러)	592	369	68	67	95	
	생명보험(달러)	432	235	43	46	66	
	손해보험(달러)	159	134	26	20	30	
시장집중도 (2022)	생명	회사 수(개)	14	21	48	31	18
		CR5(%)	80.7	73.6	48.9	55.2	79.8
		CR10(%)	98.7	93.2	70.2	82.9	93.6
	손해	회사 수(개)	21	45	70	53	35
		CR5(%)	46.0	46.5	34.8	46.0	53.9
		CR10(%)	72.4	64.5	53.8	63.2	76.5

〈부록 표 2〉 아세안 5 생명보험 상품 구성

(단위: %)

항목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개인보험	저축	81.2	7.4	82.2	72.6	89.0
	사망·상해	10.3	81.3	17.4	18.5	1.2
	연금	-	1.4	0.4	-	0.6
특약 건강보험	-	-	-	-	9.3	
단체보험	1.0	7.5	-	8.8	-	
기타	7.5	2.4	-	-	-	
수입보험료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저축' 항목에는 유닛링크와 양로보험, '사망·상해' 항목에는 개인(Individual), 종신 및 정기, 상해보험을 포함함
 2) 베트남의 특약보험(Riders insurance)은 상해·질병보장특약(Accident or healthcare/medical rider)을 의미함

자료: AXCO

〈부록 표 3〉 말레이시아 생명보험 자산 구성(2021년 기준)

(단위: %, 백만 링깃)

항목	비중
현금 및 예금	5.8
정부 채권 및 보증 대출	12.3
채권	63.7
투자 펀드	1.1
대출	4.0
유형자산	0.8
해외 자산	6.4
기타	5.8
총자산 (자산 총액)	100.0 (280,650)

자료: AXCO

〈부록 표 4〉 태국 생명보험 자산 구성(2021년 기준)

(단위: %, 백만 바트)

항목	비중
채권	79.6
주식	8.8
펀드	5.9
대출	5.0
부동산	0.7
총자산 (자산 총액)	100.0 (2,982,010)

자료: AXCO

〈부록 표 5〉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자산 구성 (2020년 기준)

(단위:%, 백만 루피)

항목	비중
예금	6.7
정부 및 인도네시아은행 발행 유가증권	17.7
정부 이외 발행 유가증권	0.0
채권, 중기채	8.2
주식 및 펀드	61.9
사모 증권	2.2
대출	0.03
건물 및 부동산	2.4
기타	0.8
총자산 (자산 총액)	100.0 (469,816,198)

자료: AXCO

〈부록 표 6〉 필리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자산 구성(2020년 기준)

(단위: %, 십억 페소)

항목	생명보험	손해보험
예금	1.5	16.7
정부 발행 유가증권	27.9	39.3
주식 및 채권	9.8	20.7
대출	3.2	1.4
투자 펀드	2.1	15.4
투자 부동산	1.4	5.4
미인정 채권	0.3	1.2
기타 미수금	1.0	-
분리계정 자산	52.9	-
총자산 (자산 총액)	100.0 (1482)	100.0 (119)

자료: Insurance Commission Philippines(2022)

〈부록 표 7〉 베트남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현황(2021년 기준)

(단위: %, 십억 동)

항목	생명보험	손해보험
예금	39.1	77.2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40.9	3.0
담보 회사채	4.8	7.9
주식 및 출자금	11.9	8.6
투자 신탁	0.0	2.0
대출	2.0	0.3
유형자산(부동산 등)	0.0	1.1
기타	1.4	-
합계 (자산 총합)	100.0 (520,489)	100.0 (62,701)

자료: Bộ Tài Chính(2021)

2. 아세안 5 국가별 주요 지표 통계

〈부록 표 8〉 아세안 5 주요 지표 통계

항목	지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경제 규모	GDP	명목(십억 달러)	402	495	1,319	404	407
		1인당(달러)	11,824	6,875	4,779	3,483	4,153
	경제 성장률	2019년(%)	4.3	2.4	5	5.9	7
		2021년(%)	3.8	1.7	3.7	5.8	2.6
		2022년(%)	8.7	2.6	5.3	7.6	8.0
	총인구(2022년, 백만 명)	34	72	276	116	98	
	예상 인구	2030년(백만 명)	36.8	70.4	295.6	125.4	104.2
		2050년(백만 명)	41.7	66	321.6	151.3	109.6
생산가능인구 비율(%)	69.3	70.2	67.9	64.7	68.6		
중산층과 도시화	불평등 지수	2018년(%)	41.2	36.4	38.4	42.3	35.7
		10년 증감(%p)	- 4.3	- 3.9	+ 2.3	- 4.0	+ 0.1
	도시화율	2020년(%)	77.2	51.4	56.6	47.4	37.3
		최근도시인구증가(%)	2.1	1.8	2.3	1.9	3.0
		20년 증가(%p)	15.2	20.0	14.6	1.3	12.9
	생산 구조	1차산업(%)	8.3	8.6	14.2	10.2	14.9
2차산업(%)		36.3	30.4	39.7	28.4	33.7	
보장 수요	인구 구조	중위연령(세)	30.3	40.1	29.7	25.7	32.5
		부양 비율(%)	44.3	42.5	47.3	54.4	45.7
		노령화지수	32.0	83.0	25.4	19.4	35.4
		합계 출산율(%)	1.7	1.5	2.1	2.7	2.1
	사회 보장 지출	사회보장/GDP(%)	4.2	4.1	2.1	2.9	6.3
		사회보험/GDP(%)	4.1	3.1	1.4	2.0	5.5
인적 자본과 인프라	투명성 지수	2022년(%)	47	36	34	33	42
		5년 증감(%p)	0	-1	-3	-1	7
		Doing Business Index	81.5	80.1	62.8	69.6	69.8
	인적 자본	성인 문해율(%)	95.0	94	96.0	96.3	96.7
		중등교육 참가율(%)	91.3	77.3	79.6	83.3	89.2
		인적자본지수	0.61	0.61	0.54	0.52	0.69
	IT 침투율	모바일상거래 비율((%)	68	74	79	70	61
모바일금융거래 비율(%)		56	68	39	42	40	

자료: ADB(2019); AXCO; SwissRe(2022); World Bank Data; ASEAN-KOREA CENTRE(2022)

저자약력

김해식 St. John's University 위험관리 석사 / 연구위원
E-mail : haeskim@kiri.or.kr

이승준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jlee@kiri.or.kr

이승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학 석사 / 연구원
E-mail : sj_lee@kiri.or.kr

CEO Report 2023-08호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III): 동남아시아 보험시장 평가와 시사점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ISBN 000-00-0000-000-0

(정가 10,000원)